

# 무더위 식혀줄 음악의 향연 속으로...



타악그룹 얼썬 '우리가락 우리무대'.



국패마루 '우리 음악, 신명을 두드린다'.

## 매주 금요일 '우리 가락 우리 무대' 흥겨운 무대 방학 맞은 청소년 위한 '교과서 음악회' 등 다채

'한여름의 무더위를 날려준다.'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광주 시 광산구 수완지구 호수공원 수변 무대에서는 흥겨운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타악 그룹 얼썬이 주관하는 '우리 가락 우리 마당' 프로그램 덕이다.

지난 5월 13일 얼썬, 국패 마루 등이 참여한 '우리 음악, 신명을 두드린다'로 문을 연 '우리 가락, 우리 무대'는 기악, 무용, 판소리, 마당극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만날 수 있는 기획이다.

지금까지 극단 갯돌, 김미숙 뿌리 한국무용단, 도드리 등이 무대에 올랐다.

22일 열리는 공연에는 부산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이 무대를 꾸민다. 부산예술단은 '울려퍼지는 북의 소리는 하늘에 닿는다' '경기도 당구' '장구춤'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선보인다.

이어 지정남·김명자 입담 넘치는 두 소리꾼이 만든 프로젝트 그룹 '잔걱금' (7월 29일),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타악그룹 'PK' (8월 5일), 충북의 대표적 연희 집단인 '놀이마당 울림' (8월 12일), 전통공연예술센터 (8월 19일) 등의 신명난 공연이 대기중이다. 또 풍물놀이 연희단 광대 (8월 26일), (사)내뽕소리 예술단 (9월 2일), 한국전통음악연구회 (9월 16일), 놀이패 신명 (26일) 등도 만날 수 있다.

마지막 피날레 공연은 9월 30일 열리는 타악공연 얼썬의 무대다.

올해 처음으로 광주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사)문화예술협회는 매월 네번째 주 월요일(오후 7시) 광주 서구문화센터 갤러리에서 '이야기가 있는 특별한 음악회'를 진행한다.

플루트와 클라리넷 연주자, 성악가 등 6명의 음악인이 참여하고 있는 (사)문화예술협회는 지금까지 지보노래를 모아 연주한 '오월을 노래하다'와 유명 영화에 삽입된 음악을 선사한 '시네마 음악회'를 진행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세번째 음악회

는 방학을 맞은 청소년들을 위한 '교과서 음악회'로 꾸몄다. 초·중·고 음악 교과서에서 만날 수 있는 음악들을 해설과 함께 직접 들어보는 시간으로 '오 솔레미오', '산타루치아' 등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된다. 입장료는 1000원. 문의 062-384-2033.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도 매주 셋째주 월요일(오후 7시 30분) 광주 중앙문화회관 다양한 테마를 가진 음악회 '천원의 행복'으로 광주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지금까지 20여회의 행사를 치르면서 악기 시리즈 등 다양한 주제로 음악회를 열어왔으며 여름방학을 맞아 문흥지구 근린공원에서 야외 음악회 등도 준비중이다.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천원의 낭만' 행사도 진행 중인 위원회는 오는 8월 8일에는 영산북합문학회에서 피아노와 함께 하는 해설있는 음악회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226-203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립광주박물관, 내달 28일까지

## '신라 금 귀걸이 光나다'전

신라의 눈부신 금 귀걸이가 광주를 찾았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조현종)은 오는 8월 28일까지 '신라 금 귀걸이 光나다'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신라 고분에서 출토된 금 귀걸이 20여 쌍과 이들 귀걸이의 제작 비법을 알려주는 다양한 자료를 함께 선보인다.

X선 촬영기와 X선 형광분석기 등 첨단장비를 이용해 세공기술을 영상으로 제작했고, 현미경을 이용해 귀걸이 세부 부분을 찍어 더욱 자세히 관찰할 수 있게 했다.

귀걸이의 부분별 금의 함량을 분석한 자료와 X선을 투과시켜 귀걸이 내



'붉은 고리 귀걸이'

부의 구조를 보여준 사진 등 흥미로운 전시자료가 풍부하다. 062-570-7035.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젊은 춤꾼들 한자리에 모인다

'광주 현대 춤 페스티벌' 23일 남구문예회관

젊은 춤꾼들의 창작 무용을 한 자리에서 만끽할 수 있는 '2011 광주 현대 춤 페스티벌'이 오는 23일 광주남구문예회관에서 열린다.

임지형(조선대 무용과 교수·광주현대무용단예술감독)씨가 연출을 맡은 이번 무대에는 ▲장연향한빛무용단 ▲박종임비상무용단 ▲이복선무용단 ▲유길호무용단 ▲성지현 Black J 무용단이 참여한다.

장연향한빛무용단은 15명의 무용수가 한 호흡으로 움직이는 군무 'Focus'를 선보이고, 박종임비상무용단은 빛과 그림자의 절묘한 조화를 몸짓으로 형상화한 '검은 그림자'를 무대에 올린다. 이 밖에 이복선무용단은 '붉은 영혼의 함성', 유길호무용단은 'unfinished', 성지현 Black J은 '환'을 선보인다.

문의 062-230-742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부, 문화소외계층에 우수교양도서 지원 확대

청소년 유티터와 도서 복지 학교 등 문화 소외 계층에 대한 우수교양도서 지원이 확대된다.

20일 문화부는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 소외계층 시설에 대한 도서 배포 비중을 종전의 60%에서 80%로 확대하기로 하고 우수교양도서를 선정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선정 대상은 2010년 8월 1일

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국내에서 발행된 초판 교양 도서이며, 신청 접수 기간은 8월 8~23일이다.

신청서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우수도서선정지원시스템 (bookapply.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최종 심사 결과는 11월 초에 발표된다. /연합뉴스

## 전국시낭송경연 광주대회

재능시낭송협회, 23일 서구문화센터

재능교육과 재능시낭송협회(광주 지회장 서예숙)가 주관하는 제21회 전국시낭송경연 광주대회가 오는 23일 오후 2시 광주 서구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초등부, 중·고등부, 성

인부로 나뉘어 열리며 참가자는 자작 시를 제외한 우리나라 시인의 시 1편을 암송하면 된다. 2인 또는 그 이상 합송도 가능하다.

학생부 최우수상 수상자에게는 광주시교육감상이 수여되며, 성인부 동

상 이상 수상자에게는 협회가 발행하는 시낭송가 증서를 준다. 또 각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들에게는 오는 11월 열리는 본선 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은 재능시낭송협회 광주지회로 전화 신청하거나 재능시낭송협회 홈페이지(www.jeinsarasang.org)에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655-1132.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경주 골굴사 '선무도' 상설 공연

〈불교전통무예〉

바라춤·승무 등 특별무대... 템플스테이도

불교전통무예인 선무도(禪武道)와 함께 문화예술 공연이 매일 펼쳐지는 사찰이 있어 화제다. 경주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11교구 골굴사. 골굴사는 '한국의 소림사'로 불리며 선무도의 총본산으로 알려져 있다.

골굴사 상설무대에서는 매일(일요일은 제외) 오전과 오후 두 차례 선무도 시연단인 '사천왕'의 특별무대와 바라춤, 승무 등 다양한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 후에는 불교전통예술공연단의 지도로 나비춤, 살풀이, 법패 등을 배워보는 시간과 선무도 등 전통무예를 체험해보는 시간도 주어진다. 관람료는 무료다.



한편, 골굴사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무예를 통한 대안교육인 선무도 화랑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통문화체험 프로그램과 템플스테이, 연수·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문의 054-744-1689.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늦깎이 시인 김병중 '주포만 휘밍웨이' 출간

40년간의 공직(세무공무원)생활을 마치고 늦깎이로 등단한 김병중(60·사진)씨가 첫 시집 '주포만 휘밍웨이' (한림 펴냄)를 출간했다.

등단작인 '주포만 휘밍웨이'를 비롯해 90여 편의 시를 '가을 나그네' '민들레' 등 6부로 나눠 구성했다.

김씨는 이번 시집에서 인생과 자연, 역사 등 삶의 전반에 걸쳐 폭넓은 소재를 자신의 독특한 시세계로 승화시키고 있다.

특히 민중 지향 시각에 바탕을 두고 인간애와 현실적 리얼리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시적 카테고리를 구축



하고 있으며 아름다운 우리 말 사용에 애쓰고 있다.

김씨는 2009년 '문예시대'를 통해 등단했으며 서문학회, 광주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호남 농·수·축 특산품과 함께하는  
**제1회 아줌마 축전**  
2011. 9. 2(금)~4(일) 무등경기장 축구장

‘제2의 청춘, 아줌마들의 세상’을 캐치프레이즈로한 이번 축전은 아줌마들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인기가수 공연 및 전시는 물론 다양한 참여 이벤트가 마련된 신나는 잔치가 될 것입니다.

특히 추석을 앞두고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인 광주·전남북지역 최우수 농수특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지역 모든 자치단체와 시·군 농수축협의 특산물 판매부스가 운영돼 행복한 축제가 될 것입니다.

추석선물·제수용품 고민해결~

**홍보판매부스 운영자모집**

- 선착순 모집배치
- 참여자격 : 호남권 특산품생산단체
- 참가문의 : 062-220-0555

주 최 | 광주일보사  
주 관 | 한국복지문화예술인협회

첫째 날 9월 2일(금)

식전공연 | 농산물개장식 | 아줌마축전개막식  
축하공연(가야금과 비보이의 만남) | 아줌마팔름대회 | 밸리댄스경연(예선) | 아줌마명상편지 | 유명가수축하콘서트

둘째 날 9월 3일(토)

시·군예술단공연 | 호남예술단공연 | 아줌마골든벨  
팔도사투리대회(속풀이발연) | 다문화가족 장기자랑대회(예선)  
밸리댄스경연(결선) | 아줌마시낭송대회  
가을속이야기 콘서트(7080가수)

셋째 날 9월 4일(일)

시·군예술단공연 | 마당놀이(사람사는세상)  
다문화가족 장기자랑(결선) | 품비경연대회(결선)  
아줌마가요제(결선)

\*9월 1일(목) | 전야제 | 품비경연대회(예선) | 아줌마가요제(예선)